

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

중국 성(省)별 동향 브리핑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6월 8일

베이징(北京)시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
시사점

KIEP 1990-2010

김 부 용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·성별연구단 초청연구원 (furongjin@kiep.go.kr, Tel: 3460-1282)

■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,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은 베이징시 기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.

- 2009년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,861억 위안으로 연속 9년간 전국 1위를 고수하였으며, 2006~09년 사이 연평균 22% 수준으로 성장하였음.
- 2009년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10.5억 달러로 2006~09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37%에 달했으며,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미국으로 그 비중이 70% 이상이었음.

■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산업은 향후에도 발전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바, 이는 한국 기업에 기회를 제공해줄 것임.

- 최근 베이징시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새로이 발표하여 베이징시를 글로벌 소프트웨어 중심도시로 육성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,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가하고 있음.
- 금융, 통신, 행정, 교통, 문화 등 산업의 성장 및 정보화 가속화로 인해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- 특히 베이징시에서는 한국의 전자정부, ITS, U-city 등의 사업을 선진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발전기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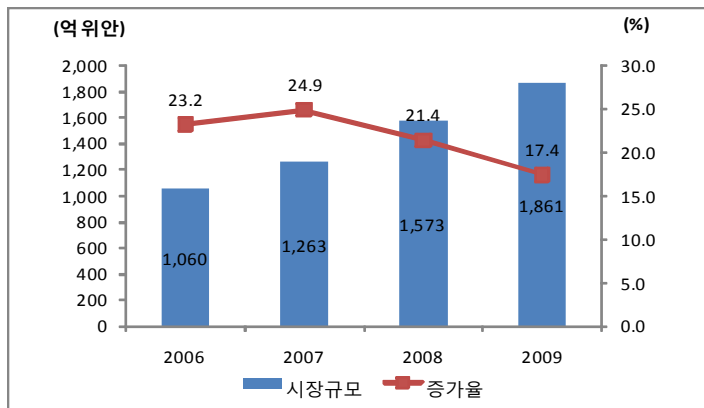
■ 한국 기업들이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을 사용해야 함.

- 이를 위해서는 현지 문화와 시장 및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,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함.
- 또한 제품설계를 다시하여 한국 버전이 아닌, 현지에 맞는 제품을 내놓아야 하며 R&D 전문가 등 핵심인사가 현지로 건너가야 함.

1.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시장 동향

- 베이징시 소프트웨어(SW)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은 베이징시 기둥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.
-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6년 1,060억 위안에서 2009년에는 1,861억 위안 규모로 연평균 22%에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(그림 1 참고).
- '중국 소프트웨어의 수도'란 칭호답게 베이징시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연속 9년간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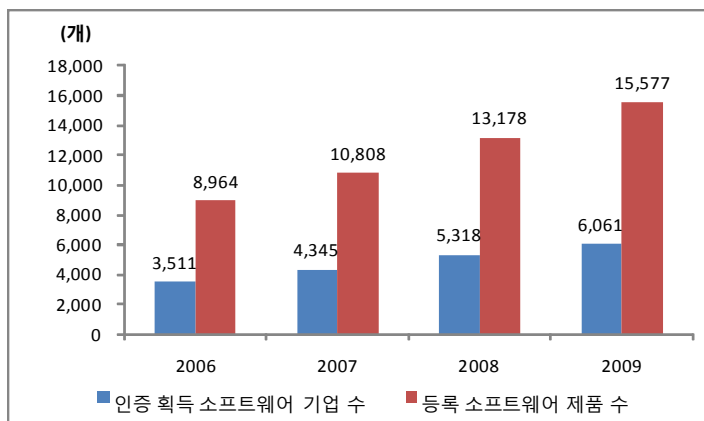
그림 1. 베이징시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추이



자료: 中国工业和信息化部; 『中国电子报』(2010. 4. 23), 「北京加快发展软件和信息服务业」.

- 2009년 신규 인증 획득 소프트웨어 기업 수는 743개, 신규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수는 2,399개로 누적치는 각각 6,061개와 15,577개에 달했음(그림 2 참고).

그림 2. 인증 획득 SW 기업 수 및 등록 SW 제품 수(누적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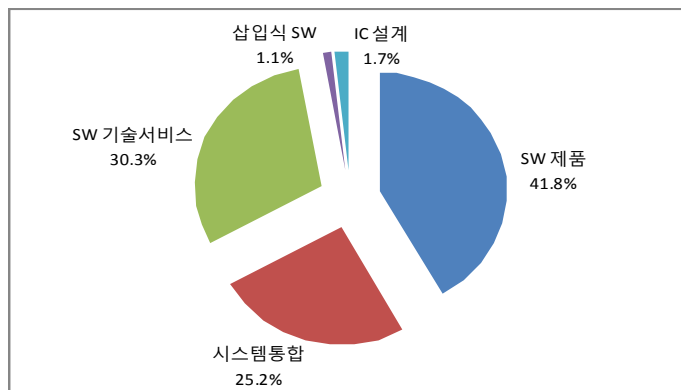


자료: 北京软件行业协会.

■ 소프트웨어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서비스가 산업수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

-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수익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바, 2009년 소프트웨어 제품 수익은 777.9억 위안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41.8%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18.2% 증가하였음.
- 소프트웨어 기술서비스 수익은 전년대비 17.8% 증가한 563.7억 위안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의 30.3%를 차지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서비스 역시 중요한 성장엔진이 되고 있음(그림 3 참고).

그림 3. 베이징시의 소프트웨어 산업 수익 구성(2009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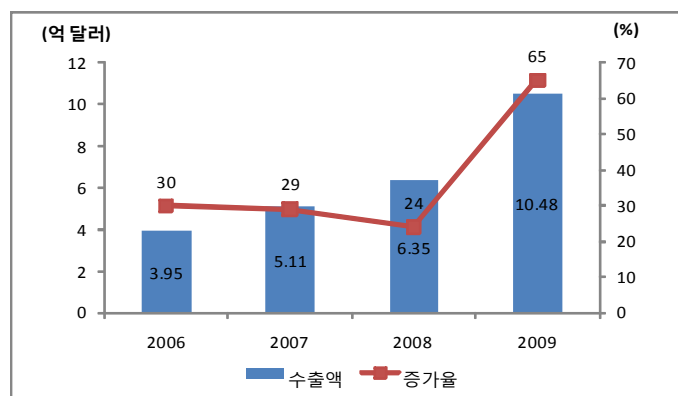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中国工业和信息化部.

■ 소프트웨어 수출입 역시 빠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.

-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2006년 3.95억 달러에서 2009년 10.48억 달러로 연평균 증가율은 37%에 달했음(그림 4 참고).

그림 4.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수출액 추이



자료: 『中国电子报』(2010. 4. 23), 『北京加快发展软件和信息服务业』.

- 일본과 미국은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수출의 주요 대상국인바, 베이징시가 이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한 수출금액은 베이징시 전체 소프트웨어 수출액의 70% 이상을 차지함.

2.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정책 동향

■ 베이징시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관련 정책은 중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음.

- 비즈니스의 전자화 추세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중국 정부는 ‘정보화를 통한 공업화’, ‘전자정부’ 등 전략을 내세우게 되었으며,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음.
- 2000년 6월 발표된 「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산업 발전 장려 정책」(18호 문건) 및 그와 관련된 후속 정책 실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건임.
- 베이징시는 2001년 2월 「국무원의 소프트웨어 및 집적회로 산업 발전 장려 정책에 관한 실시의견」을 발표하여 18호 문건을 실시할 데 관한 세부조치들을 제시하였음.¹⁾
- 「실시의견」에 이어 소프트웨어 기업 및 소프트웨어 제품 인증관리방법, 소프트웨어 산업 인재장려방법,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CMM 평가제도²⁾ 도입 등 세칙을 속속 발표하여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였음.
- 2003년에는 「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산업기지 발전 ‘창평(長風)계획’ 사업방안」을 제정하여 체제혁신으로 최적의 환경을 마련하고 수출확대, 인재양성, 핵심기업육성을 통해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을 제시하였음.
- 2006년 초에는 「베이징시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11.5 발전계획 개요」(의견청취자료)를 제정하여 11차 5개년계획 시기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목표는 기동 산업 및 서비스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과 베이징시를 글로벌 소프트웨어 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것임을 제시하였음.
- 이어 2010년 3월 베이징시 정부는 「베이징시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베이징시가 근 10년 이래 발표한 문건 중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문건임.

1) 科技部火炬高技术产业开发中心(<http://www.chinahightech.com/hj20nn11/newsview.asp?fbxxid=993>).

2) 소프트웨어 업계 국제 품질인증 기준(Capability Maturity Model for Software)으로 레벨 5가 최고임.

- 이 문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및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에 중대한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, 소프트웨어 산업을 베이징시 기둥 산업으로 육성할 것과 베이징시를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도시로 건설하자는 목표를 다시금 천명하였음.
 - 연구개발(R&D)을 장려하는 소프트웨어 응용분야로는 교통, 에너지, 제조, 물류, 행정, 금융, 통신, 매스미디어, 의료 및 사회보험을 제시하였음.
 - 또한 지식재산권, 기술, 제품 및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시장 시스템 건설을 강화할 것과 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명시하였음.
- 최근 베이징시 정부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정책은 일련의 대기업 육성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.
- 베이징시 정부는 “대기업집단 육성, 기업본부 집결, 첨단기업 경쟁력 강화, 고성장기업 육성”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으며, 10개 좌우의 선도기업과 300개 좌우의 핵심기업을 육성할 계획임.³⁾
 - 최근 소프트웨어 업계에 M&A(인수·합병) 열풍이 불고 있고, 글로벌 소프트웨어 거장들이 베이징에 진출하면서 중국 로컬기업들도 외국기업에 인수될 위험에 처하자 베이징시 정부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.
 - 현재 중국 내에서도 M&A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09년 10월 東軟(Neusoft)의 厚盾(Supporter) 인수가 한 사례임.
 - 또한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며, 기업과 은행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.
 - 현재 베이징시에 소재한 중국 로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활발하여 用友(UFIDA)의 ERP 소프트웨어,⁴⁾ 金山(KINGSOFT)의 온라인게임, 漢王(HANWANG)의 필기인식 소프트웨어, 方正(FOUNDER)의 중국어 조판시스템, 瑞星(RISING)의 백신 프로그램 등 제품은 모두 해외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경쟁력도 대폭 향상되었음.⁵⁾

3) 百度(BIDU), 用友(UFIDA), 神州數碼(Digital China), 華勝天成(TEAMSUN), 搜狐(SOHU), 新浪(SINA), 中國軟件(ChinaSoft), 航天信息(Aisino) 北大方正(FOUNDER), 清華同方(TONGFANG), 文思創新(WORKSOFT), 亞信(AsiaINFO)의 12개 기업이 향후 몇 년 내에 육성될 100억 위안급 기업집단 후보 명단에 올랐으며, 騰訊(Tencent)와 金蝶(Kingdee)가 중점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기업본부 후보에 올랐음. 이는 기업 본부를 모으는 베이징시 ‘본부경제’ 전략의 구현이라 볼 수 있음. 『中國電子報』(2010. 4. 23), 「北京加快發展軟件和信息服務業」.

4) 전사적 자원관리라 불리는 ERP(Enterprise Resource Planning) 솔루션은 기업의 생산, 판매, 인사 회계, 자금, 원가, 고정자산 등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정보기술로 구현하여 하나의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통합정보시스템임.

-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융자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베이징시 경제정보화위원회와 중국 수출입은행 베이징시 분점은 2010년 4월 개최된 “베이징시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발전 촉진대회”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데 관한 전략적 협력서를 체결하였음.

3.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응용분야 비즈니스 동향

1) 통신

- 통신은 전체 국가 차원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3망 융합(방송, 통신, 인터넷의 융합)의 중심으로서 산업구조 개편을 동반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.
- 2008년 중국 정부의 주도로 유선과 무선 시장으로 분할되었던 산업구조가 유무선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3개 사업자 구도로 재편되었으며, 이로써 통신산업의 3강 구도가 형성되었음.⁵⁾
- 재편된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중국산 기술인 TD-SCDMA를 비롯하여 W-CDMA, CDMA2000 등 3G(3Generation) 라이선스가 발급되었으며, 이는 통신설비업체 특히 華爲(Huawei), 中興(ZTE) 등 자국 통신설비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함.
- 현재 華爲(Huawei), 中興(ZTE)은 중국 통신설비시장의 95%를 점하고 있음.
- 2009년 중국의 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2조 5,68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.4% 증가하였으며,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3억 1,368만 명, 모바일 가입자 수는 7억 4,738만 명으로 휴대전화 보급률이 56.3%에 달했음(표 1 참고).
- 같은 해 베이징시의 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883.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5.8% 증가하였고,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893만 명, 무선전화 가입자 수는 1,825만 명으로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%를 넘겨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까움(표 1 참고).

5) 『经济日报』(2008. 7. 10), 「北京软件产业快速崛起」.

6) 개편 전 중국에는 이동통신업체인 차이나모바일, 차이나유니콤, 차이나새트콤과 유선통신업체인 차이나텔레콤, 차이나넷콤, 차이나티에통으로 구성된 총 6개 통신업체가 있었음. 산업구조 개편으로 차이나티에통은 차이나모바일에 합병되고, 차이나텔레콤은 차이나새트콤을 합병하고 차이나유니콤의 CDMA 사업을 넘겨받았으며, 차이나유니콤은 차이나넷콤을 합병하였음.

표 1. 전국 및 베이징시 통신업 현황

구분	시장규모		유선전화 가입자 수		휴대전화 가입자 수		휴대전화 보급률	
	2009년	전년대비	2009년	전년대비	2009년	전년대비	2009년	전년대비
	(억 위안)	(%)	(만 명)	(만 명)	(만 명)	(만 명)	(%)	(%P)
전국	25,680.6	14.4	31,368.8	-2,667.1	74,738.4	10,613.8	56.3	7.8
베이징시	2,883.1	15.8	893.1	8.2	1,825.5	209.3	107.7	8.7

자료: 中国工业和信息化部(<http://www.miit.gov.cn>).

■ 통신산업구조 개편과 베이징시의 방대한 통신서비스 시장규모는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.

- 구조 개편으로 유무선 통합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3대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임.
-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멀티미디어, 인터넷, 게임,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해주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, 이용요금 처리시스템 및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임.

2) 금융

■ 중국 금융시장의 개혁·개방 및 급성장으로 관련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고품질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.

- 금융 개혁이 심화되고 시장화 정도가 높아지면서 서비스 다양화 및 금융상품의 개발, 리스크관리, 정보보안대책에 필요한 업계 정보화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음.⁷⁾
 - ATM 기기 보급으로 인한 고객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, 정보보안 솔루션 등에 대한 IT 투자 비중이 타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음.
 - 또한 금융서비스 영역 확대와 시장경쟁의 가열로 인해 기존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교체 및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야기되고 있음.
- 글로벌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 불확실성의 존재로 신용평가시스템,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시스템 등 금융권의 리스크관리시스템 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, 이는 리스크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것임.

7) KOTRA 베이징 IT 지원센터 「기업의 현지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 - 한국 S/W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-」, In Depth 보고서(2010. 1. 25).

- 그러나 중국 로컬 소프트웨어기업들은 아직 은행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능력이 부족하며, 주로 은행업무 주변시스템(사무지원시스템, 정보보안포털시스템 등)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음.⁸⁾
- 사실 은행업무 주변시스템의 개발수요를 만족시켜주는 로컬 소프트웨어 기업도 恒生전자(Hundsun) 등 몇 개밖에 안됨.
- 베이징시 정부는 향후 금융업을 대폭 발전시켜 베이징시를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인바, 향후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임.
- 금융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금융가, 상업중심구(CBD) 및 리저금융상업구(麗澤金融商務區) 건설을 전면 추진하고 있음.

3) 정부 · 공공 부문

- 베이징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자정부(e-government)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, 이는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.
- 베이징시는 중국의 수도로서 중앙정부 및 각 부처의 집결지이므로 시장수요 및 시장우위가 있음.
- 베이징시는 ‘디지털 베이징’, ‘디지털 올림픽’ 등 정보화 발전전략을 내세우면서 전국에서 솔루션범으로 정부의 정보화를 추진해나가고 있음.
- 베이징시가 사회 전반에 걸쳐 ‘공용서비스 정보화’ 전략을 내세우면서, 특히 교통서비스의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미들웨어, 보안 SW, SI(시스템통합), CRM(고객관계관리) 제품은 향후 교통분야 소프트웨어의 주요 수요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됨.⁹⁾
- 베이징시는 중국 ITS(지능형 교통시스템) 정책 및 프로젝트 선도지역으로 현재 ITS 등과 연계된 IT 융합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음.
- 일례로 리저금융상업구의 경우 여타 금융상업구와 달리 ‘정보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종합시범구’로 건설될 계획임.¹⁰⁾

8) 『证券时报』(2007. 1. 27), 「金融软件公司与行情同悲喜 未来发展在自主开发」.

9) KOTRA 베이징 IT 지원센터 「기업의 현지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 - 한국 S/W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-」, In Depth 보고서(2010. 1. 25).

10) 『北京日报』(2010. 1. 17), 「丽泽金融商务区规划综合方案获批」. 현재 리저금융상업구는 차이나유니콤,

- 베이징시 정부는 소프트웨어기업의 교통(특히 고속철도와 궤도교통)분야 R&D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바, 일련의 경쟁력 있는 교통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및 시스템통합업자를 육성할 계획임.
- 베이징시 자동차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차량용 블랙박스, 종합교통정보센터 등 ITS 시장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, 따라서 차량 간 통신이나 실시간 교통량 추적, 자동 운전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.

4) 문화

- 베이징시는 산업구조 조정과 내수확대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, 이는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의 발전에 더욱 많은 기회를 부여해줄 것임.
- 2009년 7월 중국 최초의 문화육성 강령인 「문화산업진흥계획」이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어 관련 후속조치가 발표되었음.
- 창의문화산업, 영상제작업, 출판업, 인쇄업, 광고, 엔터테인먼트, 전시, 디지털콘텐츠, 애니메이션 등이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주요 산업으로 규정되었으며, 해당 영역 종사기업대상에는 향후 몇 년간 부가가치세, 영업세, 수입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함.
- 베이징시에서는 「문화산업진흥계획」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정책을 제정하였음.
- 또한 중관촌(中關村)애니메이션게임단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, 이는 애니메이션 개발, 생산, 교역을 통합한 문화산업단지로서,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세수 및 용자 혜택을 제공해주며 첫 1년은 세금을 면제해줌.¹¹⁾

4.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의 베이징시 진출 동향

-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1999년을 전후하여 베이징지역을 위주로 진출하고 있음.
- KOTRA 베이징 IT 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D/B에 따르면, 중국 진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베이징 및 인근 지역의 한국 IT 벤처기업은 약 170개사 정도로 추정되는데, 그 중 반수 이상 기업이 베이징에 지사, 연락사무소 혹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.¹²⁾

차이나텔레콤, 차이나모바일 등 통신사업자와 정보화 전략 협력서를 체결하여 리저금융상업구의 건설에 3망융합, 사물 간 통신(The Internet of Things)등 IT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용할 계획임.

11) 『北京商报』(2009. 8. 4), 「中关村建设动漫游戏孵化基地 企业第一年费用全免」.

- KOTRA 베이징 IT 지원센터가 2009년 11월 현지 진출 기업 11개사를 대상으로 현지화 과정에 대하여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, 현지 진출 기업 대부분이 솔루션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임.¹²⁾
- 본사 직원은 100명 이하 기업이 대부분이고 현지 거점은 1~1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.
- 80% 이상의 진출기업이 솔루션부문에서 활동하고 있고 SI 부문은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음.¹⁴⁾
- 기업별 본사 매출액은 평균 89억 원 규모이고, 현지 매출액은 평균 7만 7천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.
- 현지 진출한 한국 모 소프트웨어 기업 인사와의 인터뷰에 의하면, 현지에 진출한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온라인게임 몇 개를 빼고는 성공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함.
- 실패의 한 원인은 현지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임.
- 예를 들어 금융 솔루션 업체의 경우 신용평가는 어떻게 받는지, 업무 프로세스는 어떠한지,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은행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함.
- 실패의 다른 원인은 한국 본사의 것을 그대로 현지화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인데, 실제로 한국 버전의 3분의 1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현지 사정에 맞지 않다고 함.
- 예를 들어 한국 방화벽으로는 중국의 QQ 메신저¹⁵⁾를 통한 정보통신망의 불법 접근을 차단할 수 없으나 중국 로컬제품으로는 차단이 가능함.
- 또 다른 원인은 핵심인사가 몇 명 건너가지 않은 것인데, 보통 개발자 1명 정도만 건너간 상황임.
- 이밖에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부족, 중국 전문인력 부족, 글로벌 기업들의 활약과 중국 로컬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등도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음.

12) KOTRA 베이징 IT 지원센터 「기업의 현지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 - 한국 S/W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-」, In Depth 보고서(2010. 1. 25).

13) KOTRA 베이징 IT 지원센터 「기업의 현지화를 통한 핵심 경쟁력 강화 - 한국 S/W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중심으로-」, In Depth 보고서(2010. 1. 25).

14) SI 시장은 중국 로컬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분야로서 외국기업이 침투하기 어려운 시장 중 하나임.

15)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가 네이트온이라면 QQ는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메신저임. QQ는 중국 腾讯(Tencent)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메신저 서비스 외에도 메일, 블로그, 상거래, 미니홈피, 게임 등 다양한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5. 전망 및 시사점

■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전망은 향후에도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됨.

- 한편으로 정부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둥 산업으로, 베이징시를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.
- 다른 한편으로 금융, 통신, 행정, 교통, 문화 등 분야의 성장 및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.
- 금융 개혁과 개방 및 경제 불확실성의 존재로 서비스 다양화, 금융상품의 개발, 리스크 관리, 정보보안대책에 필요한 업계 정보화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음.
- 통신시장의 빠른 성장세와 구조 개편에 따른 통신업자 간 경쟁심화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, 이용요금 처리시스템 및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임.
- ‘전자정부’, ‘사회 공용서비스 정보화’ 등 정보화 전략으로 미들웨어, 보안, ITS, CRM 등 분야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임.
- 베이징시가 문화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바, 이는 방송, 출판, 광고, 엔터테인먼트,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.

■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 시장환경은 한국 기업,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부여해주고 있음.

- 베이징시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투융자환경을 개선하며,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시장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한국 소프트웨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임.
- 금융, 통신, 정부, 교통, 문화 등 산업의 성장 및 정보화 가속화로 인해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임.
- 특히 베이징시는 한국의 전자정부, ITS, U-city 등 사업을 선진사례로 보고 협력을 원하며, 한국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U-city를 집중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기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.
- 한국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이라든가, 한류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등

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서도 사업기회가 많을 것임.

- 그러나 브랜드를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, 베이징시 정부가 중국 로컬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 로컬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어 한국 중소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.

■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베이징시 소프트웨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지화 전략이 절실함.

- 현지 문화와 시스템 및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, 현지 정부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.
- 제품 설계를 다시 하여 한국 버전이 아닌,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을 내놓아야 함.
- R&D 전문가 등 핵심인사가 현지로 건너가야 함.
- 틈새시장을 잘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바, 사실 틈새시장 공략 공간은 한국보다 더 넓음.
- 중국 사업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. **KIEP**